

경제주평

- 국내 니트족(NEET) 현황과 시사점
 - 니트의 장기화 예방이 시급하다!

Executive Summary

□ 국내 니트족(NEET) 현황과 시사점 - 니트의 장기화 예방이 시급하다!

■ 개요

최근 들어 국내 청년(15~29세) 실업률이 재상승하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면서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청년실업률은 9%대에 이르렀고,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0% 중반대에 머물면서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OECD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 인구 중 니트족(15~29세 청년층 실업자와 학생이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017년 기준 18.4%(170.8만명)로 OECD 평균 13.4%를 크게 상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니트족 추이를 추정한 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 OECD와는 달리 '미혼'이면서 '쉬었음'에 해당하는 15~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협의의 니트족을 추정했다.

■ 국내 니트족 현황

① 전체 니트족 추이

2010년대 중반 이후 니트족이 증가세로 반전,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면서 전체 청년층 인구 및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다. 2016년 약 26.2만명까지 하락했던 국내 니트족 규모는 이후 증가세로 반전, 2020년에는 43.6만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전년대비 24.2%(약 8.5만명)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국내 니트족이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약 2.8%에서 4.9%로 2.1%p 상승했으며, 전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약 5.2%에서 약 9.1%로 약 3.9%p 급등했다.

② 성별 니트족 추이

남성 니트족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여성 니트족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17년부터 남녀 니트족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2019년에는 남녀 니트족이 각각 15.1%, 13.7%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동 24.7%, 23.6%로 증가세가 빨라졌다. 한편, 2020년 기준으로 남성 니트족 규모는 24.5만명, 여성 니트족 규모는 19.1만명으로 여전히 남성 니트족 규모가 크지만, 여성 니트족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니트족 대비 비중이 30%대 중반 수준에서 약 43.7%까지 상승했다.

③ 학력별 니트족 추이

최근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니트족이 급증하면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고졸 이하 니트족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규모는 2016년 약 17.2만명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20년에는 약 27.5만명으로 증가했다. 동기간 고졸 이하 니트족은 약 9.0만명에서 약 16.1만명으로 약

7.1만명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비중이 2020년 약 63.0%까지 상승했다.

④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

니트족 가운데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없는 자(이하, 전직 경험 없음)와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인 자(이하, 무직 1년 이상)의 비중이 5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장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이상 니트족은 2017년에 약 6.6만명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12.0만명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아예 전직 경험이 없는 니트족도 2020년 약 1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직 1년 이상의 니트족과 더하면 약 23.8만명으로 전체 니트족의 54.6%를 차지했다.

⑤ 학력별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

최근 들어 고졸 이하 니트족 중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자(이하, 무직 1년 미만)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전문대졸 이상은 축소되었다. 다만, 이들 모두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니트족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자는 2020년 약 7.3만명으로 전체 니트족 대비 비중이 약 45.2%에 달해 2019년에 비해 약 7.8%p 상승했다. 반면에,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중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자는 2020년에 약 12.5만명으로 전체 니트족 대비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약 1.6%p 하락한 45.5%였다. 다만, 전체 니트족에서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 고졸 이하 54.8%, 전문대졸 이상 약 54.5%로 5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니트족의 증가 및 이의 장기화는 니트족 자신의 생애소득 감소에 따르는 후생수준의 하락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부모세대 부담 가중, 각종 사회적 비용 유발, 노동투입량 감소 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니트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현황 파악은 물론 그들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청년층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종합적인 청년층 실업대책 마련 등을 통해 니트족의 장기화를 예방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니트족의 특성도 달라지는 만큼 정책 대응 또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좋은 일자리의 창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니트족 후보군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

1. 개요

○ 최근 들어 국내 청년(15~29세) 실업률이 재상승하는 등 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하락하면서 니트족(NEET)화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 재상승하고 있는 청년실업률

- 2010년대 초반까지 8% 이하 수준에 머물던 청년실업률은 이후 상승세로 전환, 최근 9%대 수준에 도달
- 이는 타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전체 실업률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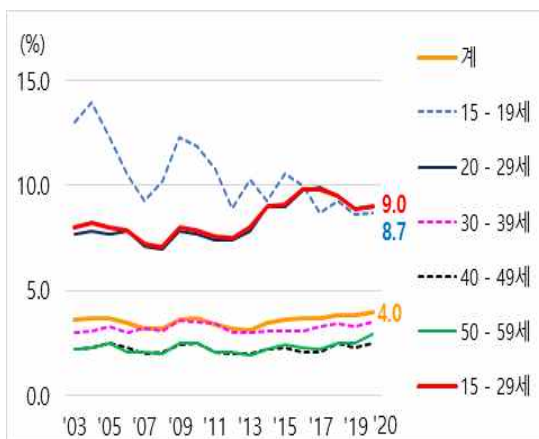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저조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 2000년대 들어 40% 후반 수준까지 상승했던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최근에는 40% 중반 수준으로 하락
- 2020년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46.4%로 타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청년층의 니트족화도 크게 우려

- 니트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준말로 교육을 받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청년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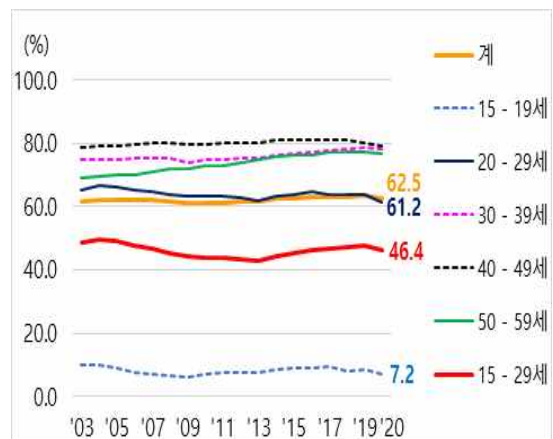
< 연령 계층별 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계는 15세 이상 전체 연령층.

<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계는 15세 이상 전체 연령층.

○ 이하, 국내 니트족 규모를 니트족의 정의에 맞춰 OECD와는 달리 협의의 개념으로 추정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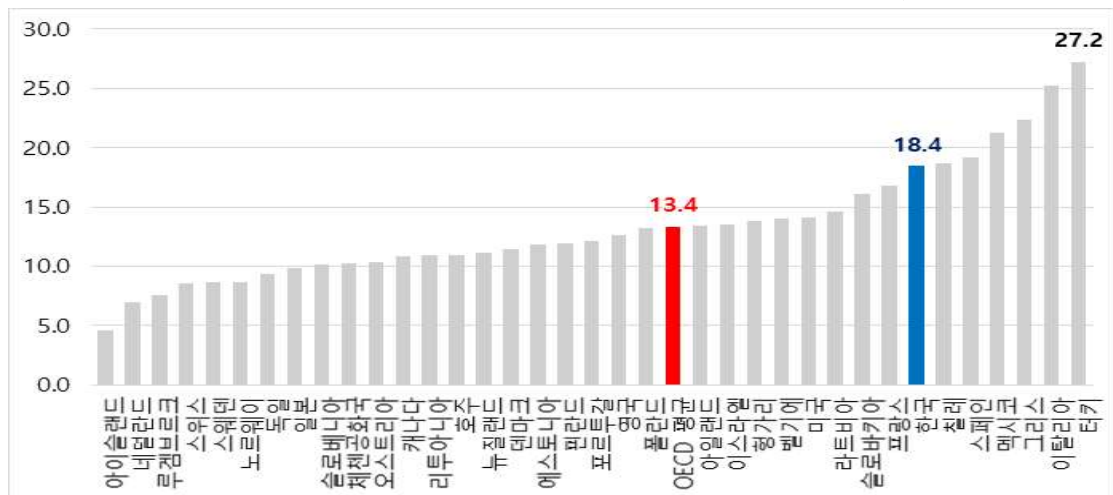
- OECD에서 회원국 대상 광의의 니트족 규모를 추정하여 발표¹⁾

- OECD의 경우, 전체 청년층(15~29세) 인구 중 취업자와 학생을 제외한 자를 니트족으로 분류
- 즉, 니트족은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청년층이 되는데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학생'으로 추정
- 추정결과, 전체 청년층 중 니트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17년 18.4%(170.8만 명)로 OECD 평균 13.4%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²⁾

- 국내 니트족은 OECD와는 달리 협의의 개념으로 추정

- 본 고에서는 니트족의 개념에 따라 15~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미혼이면서 육아나 가사, 통학, 심신장애, 취업 또는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 등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자를 니트족으로 규정
- 따라서 본 고에서 추정대상이 되는 니트족은 미혼이면서 쉬었음에 해당하는 15~29세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임

< OECD 기준 국별 니트족(NEET) 비중 비교(2017년 기준, %) >



자료 : OECD, Society at Glance 2019.

1) OECD는 니트족을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으로도 표기(OECD, Society at Glance 2019.)
 2)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국내 15~29세 청년층 인구는 928.2만 명임.

2. 국내 니트족 현황

① 전체 니트족 추이

- 2010년대 중반 이후 니트족이 증가세로 반전,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면서 전체 청년층 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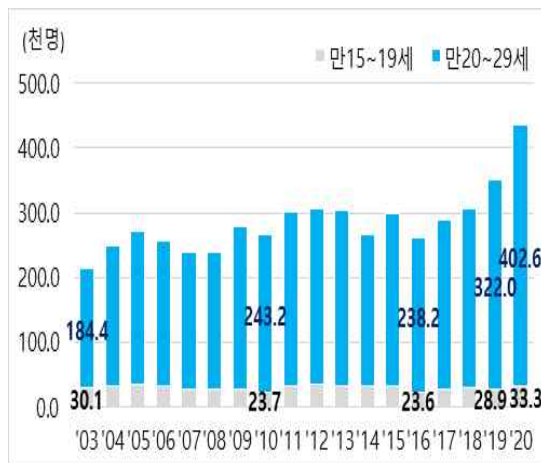
- 2010년대 중반 이후 니트족 증가세 반전

- 2016년 약 26.2만명까지 하락했던 국내 니트족 규모는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2020년에는 402.6만명 수준으로 상승
- 특히, 2020년에는 전년대비 24.2%(약 8.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청년층 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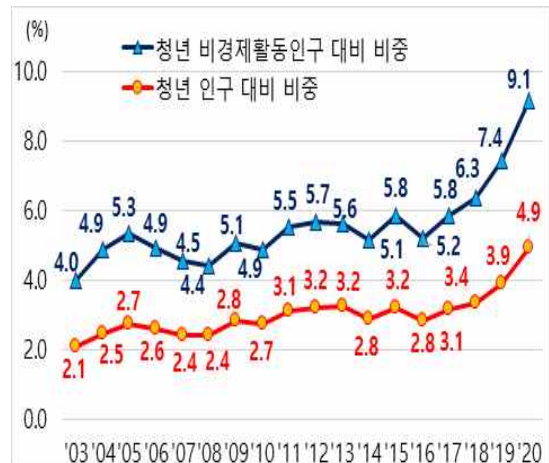
- 국내 니트족이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약 2.8%에서 2020년에는 4.9%로 2.1%p 상승
- 한편, 국내 니트족이 전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약 5.2%에서 약 2020년 9.1%로 약 3.9%p 급등

< 니트족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니트족=15~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 총 청년층 인구 및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니트족 비중 >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모두 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함.

② 성별 니트족 추이

○ 성별로는 남성 니트족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여성 니트족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 남녀 니트족 모두 급증세

· 2017년부터 남녀 니트족 모두 증가세로 전환, 특히 2019년에는 남녀 니트족 각각 15.1%, 13.7%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동 24.7%, 23.6%로 증가세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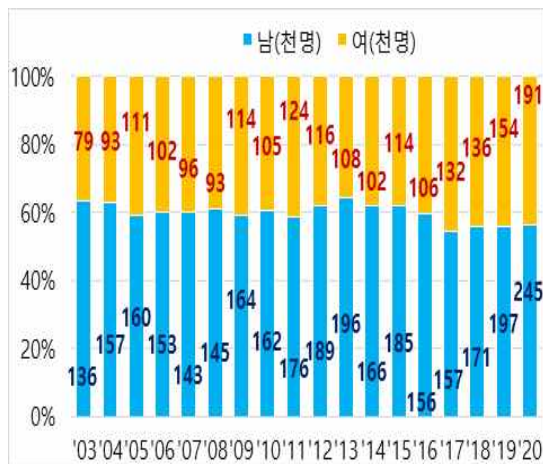
- 여전히 큰 남성 니트족 규모

· 2020년 기준 남성 니트족 규모는 24.5만명, 여성 니트족 규모는 19.1만명으로 남성 니트족이 여성 니트족에 비해 약 5.4만명 상회하는 수준

-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여성 니트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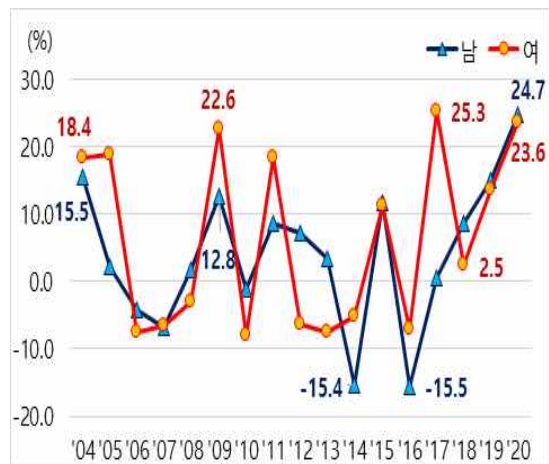
· 10만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던 여성 니트족 규모는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 2020년에는 19.1만명으로 급증
 · 그 결과, 여성 니트족이 전체 니트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중반 수준에서 2020년에는 43.7%까지 상승

< 성별 니트족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니트족=15~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 성별 니트족 증감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니트족=15~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③ 학력별 니트족 추이

○ 최근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니트족이 급증하면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고졸 이하 니트족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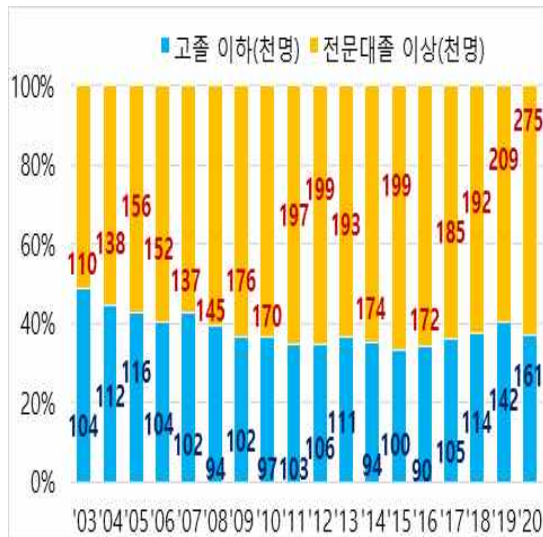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급증한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규모는 2016년 약 17.2만명 수준까지 축소되었으나,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20년에는 약 27.5만명으로 약 10.3만명 확대
- 고졸 이하 니트족 규모도 동기간 약 9.0만명에서 약 16.1만명으로 약 7.1만명 증가했으나, 증가 규모는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 급격히 확대된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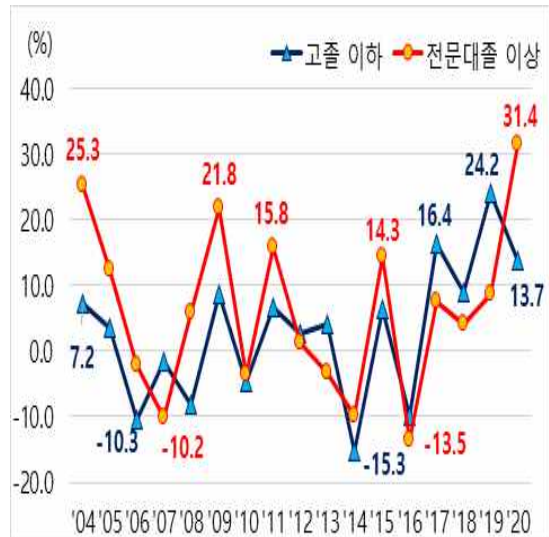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고졸 이하 니트족과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의 증감률은 각각 13.7%, 31.4%로 나타나,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
- 그 결과, 전체 니트족에서 차지하는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의 비중도 2019년 59.6%에서 2020년 63.0%로 상승

< 학력별 니트족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니트족=15~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 학력별 니트족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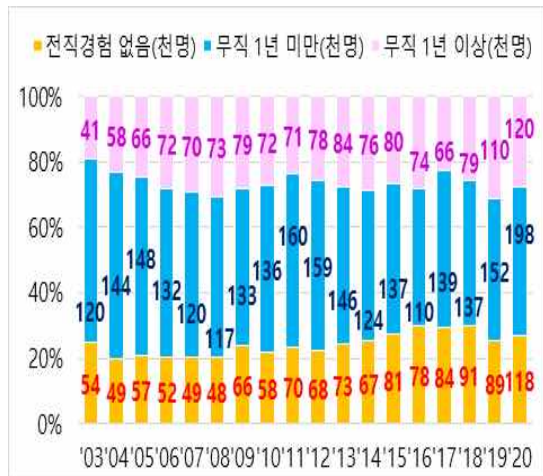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니트족=15~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④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

○ 니트족 가운데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이 없는 자(이하, 전직경험 없음)와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인 자(이하, 무직 1년 이상)의 비중이 50% 이상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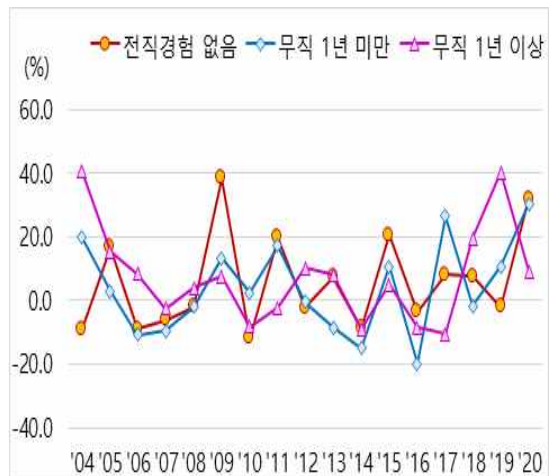
-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자(이하, 무직 1년 미만)의 니트족 비중은 감소
 -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의 니트족은 2016년에 약 11.0만명 수준까지 감소한 이후 2020년에는 약 19.8만명으로 증가
 - 이로 인해 동기간 무직 기간별 니트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1%에서 45.4%로 소폭 상승했으나, 50% 중후반 수준을 유지했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보면 이는 크게 축소된 수준
-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의 니트족 비중은 50%를 상회
 - 상대적으로 장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이상 니트족은 2017년에 약 6.6만명으로 축소되었지만, 2020년에는 약 12.0만명으로 약 1.8배 이상 증가
 - 아예 전직 경험이 없는 니트족은 2020년 약 1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직 1년 이상의 니트족과 더하면 총 약 23.8만명으로 전체 5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15~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의 유무 및 휴직 기간별 구분.

< 무직 기간별 니트족 증감률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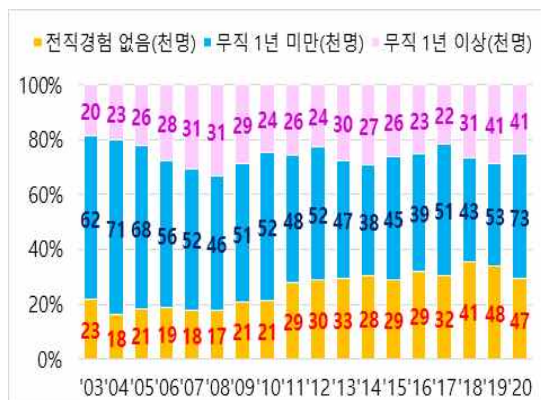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15~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의 유무 및 휴직 기간별 구분.

⑤ 학력별 무직 기간별 니트족 추이

○ 최근 들어 고졸 이하 니트족 중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전문대졸 이상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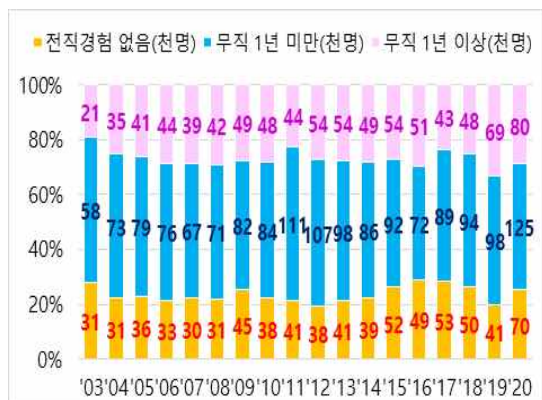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고졸 이하 니트족 비중 확대
 - 고졸 이하 니트족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자는 2020년 약 7.3만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2%로 나타남
 - 이는 전년인 2019년 약 37.4%에 비해 약 7.8%p 상승한 수준
-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비중은 축소
 -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중 상대적으로 단기로 볼 수 있는 무직 1년 미만인 자는 2020년 약 12.5만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5% 수준
 - 이는 전년인 2019년 약 47.1%에 비해 약 1.6%p 하락한 수준
- 다만,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 비중이 모두 50%를 상회
 - 고졸 이하 니트족 중 전직 경험 없음과 무직 1년 이상 비중은 2020년 기준 약 54.8%로 전년 약 62.6%에 비해 약 7.8%p 축소되었지만, 50% 이상 수준을 상회
 -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은 동 약 54.5%로 전년 약 52.9%에 비해 1.4%p 상승, 2014년부터 50% 이상 수준을 유지

< 무직 기간별 고졸 이하 니트족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15~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의 유무 및 휴직 기간별 구분.

< 무직 기간별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15~29세 청년층 중 미혼의 쉬었음 인구 중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의 유무 및 휴직 기간별 구분.

3. 시사점

- 니트족의 증가 및 이의 장기화는 니트족 자신의 생애소득 감소에 따르는 후생 수준의 하락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부모세대 부담 가중, 각종 사회적 비용 유발, 노동투입량 감소 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첫째, 니트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현황 파악은 물론 그들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 니트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
- 더군다나, 니트족의 실태에 대한 조사도 부족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둘째,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강화되어야 함

- 정규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에 관한 청년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와 함께 각 지자체, 대학, 직업교육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직업연계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셋째, 종합적인 청년층 실업대책 마련 등을 통해 니트족의 장기화를 예방함으로써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공공부문의 직업중개기능 강화, 직업교육훈련 등 실직 또는 무직 청년들에 대한 직업 탐색 기회 강화 등을 통한 고용 연계 기능 확대 등이 필요함

- 좀 더 적극적으로는 중소·벤처 또는 중견기업 등의 근로 환경개선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또는 기피 현상을 최대한 완화해야 함

넷째,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니트족의 특성도 달라지는 만큼 정책 대응에 있어서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니트족의 경우, 성별이나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다양한 특징이 있고, 니트족을 둘러싼 생활환경 등에 따라서도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별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좋은 일자리의 창출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함

-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좋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 노동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임과 동시에 니트족 후보군 자체를 축소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니트족화의 궁극적인 예방책이기도 함 **HRI**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류 승 회 연 구 원 (2072-6217, shryu@hri.co.kr)

<참고> 국가별 니트족(NEET)의 특징

구분	개념	특징	주요 영향
일본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15~34세 청년층	사회적 배제형, 고립형, 주춤형, 자신감 상실형, 대기형 등으로 나뉨	
영국	학교에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16~18세 청년층	18세 이후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며 실업자, 사회복지금부 수급자, 약물 남용자 등 사회적 문제 유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니트족 자신의 생애 소득 감소 2.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담 가중 3. 각종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 상승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유발 4. 잠재실업률 상승 5. 노동투입량 감소 등에 따르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
미국	은수저증후군(Silver Spoon Syndrome), 30세 이후에도 부모에 얹혀사는 경우가 많음	영국과 유사	
스웨덴	아웃사이더(Outsider), 16~24세		
캐나다	미국의 니트족과 유사		

자료 : 이부형, '한국도 NEET족인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2005년 4월 20일, 가필·수정 및 재인용.